

들꽃편지 662

2024.3.20. 춘분
<https://cyw.pe.kr>



똥구녕이나 빠는 종교는 싫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1,2차 세계 대전은 인류를 동지는 없고 적만 있는 '야만의 시대'로 몰아넣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1933년 국민선거를 통하여 히틀러를 새로운 국가 지도자로 선출했고 독일 기독교는 히틀러를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기대와는 달리 유태인을 600만명이나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히틀러에게 맥없이 무릎을 꿇고 협조하는 독일교회에 좌절한 본 회퍼(D Bonhoeffer)는 '반 나치 운동'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가 출현하여 교회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분명히 새로운 종류의 수도회주의에서 나올 것이며, 그것은 오래된 것과 공통점이 없으며, 산상수훈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타협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사람들을 모을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본 회퍼

본회퍼는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전 2년 남짓 핑겐발데신학교에서 자신이 구상한 수도회 정신을 실험했는데 그것이 바로 수도원과 교회를 합친 것 같은 모임인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입니다. 본회퍼는 "기독교는 권력자의 똥구녕이나 빠는 싸구려 신앙, 구원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고 가르치는 싸구려 종교가 아니다"라고 파를 토하며 외쳤습니다.

메켄타이어는 "현대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가 아니라 '힘이 곧 정의'가 되는 '파편화된 야만의 시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가치 체계인 '세상 나라'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레임으로 봄을 맞이하는 최용우 올립니다.



한완상

바보
예수

그 바보스러움 마심
 아보스러움 거만과 (사람)에서
 새로운 힘 새로운 이해로
 새날을 밝힌 기쁨을

한완상 책 <바보 예수> 표지

절대 평화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바탕(the ground of being)이다.
나무로 비유하면 그것의 뿌리다.
또는 그것이 뿌리박고 서 있는 대지다.
나무가 대지에 든든히 뿌리박고 서 있는 것,
그것이 화평이다.
그것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화평이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는 화평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빼앗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 평화'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53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사순절 기간에 오직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부활의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나옵니다.
절제도 못 합니다.
결단도 다짐도 못합니다.

어느 위인은 어릴 적 엄마 젖을 빨다가 깨물어
엄마가 아파했다는 것까지 회개하게 하시더라는 얘기를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젖은 커녕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강박합니다.
이렇게 완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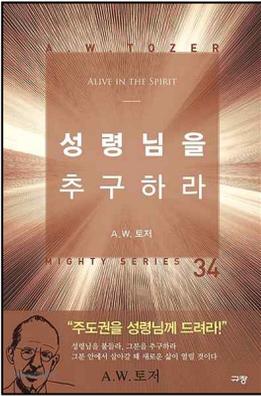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성령님을 추구하라



토저 마이티 시리즈 34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304쪽 22,000원 규장 2023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려라!”
성령님을 붙들라, 그분을 추구하라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다

1. 중요한 것은 성령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각 개인의 삶에 임하는 성령의 강력한 충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충만을 받으면 내가 주도권을 쥐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옆으로 비켜서고 성령님이 대신 그분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2. 오직 성령님이 일하신다

영적 사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분의 임재가 경이와 경외의 감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사역을 떠맡게 되는데, 그 사역은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시작될 수 없는 일일 것 같은,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3. 신비가들

옛 교부 시대의 수많은 신비가(神祕家 mystic)들은 내면생활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신비가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 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4.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때 언제나 그분의 사람들부터 움직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이나 교회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행동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대하7: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그분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여 하나님의 신뢰를 얻은 사람을 찾으셨을 때,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의 질(質)은 그 사람의 인간적 능력보다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람은 일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에 의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6.의인의 터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시11:3)고 물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제까지 파괴되고 무너진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는가? 이것을 알아내서 해결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아주 무서운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무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7.쇠약해진 우리의 영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우리의 영혼 안 한 구석에는 해결되지 못한 ‘영혼의 쇠약함’(시106:13-15)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거의 만족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8.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둘러보시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히12:2)를 바라보는 사람을 여기저기에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9.성령님의 터 위에

우리의 터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터가 아닌 세상의 엔터테이먼트와 최신 유행들을 교회 안에 들여오고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재미있는 연예오락이 있고 그것들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교에 옵니다.

10.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격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속성들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대신에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또다시 많은 것을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오. 그리고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오”(요14:26) 성령님과 인격으로 만나서 교제해야 합니다.

11.친밀성

성령님께는 인격성, 개체성, 지성(知性),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소외되어 슬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분을 알고 성경을 인용하여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친밀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12.성령님의 주도권

우리는 기도와 순종과 죄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을 내 안에,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도권을 쥐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우리를 통제하시면, 생명과 빛과 권능과 승리와 기쁨과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문제들이 풀리고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3.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성령님이 어떤 사람의 삶에 계신지 안계신지의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으시는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신지 안계신지 판단 기준도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으시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면 성령님은 슬퍼하시며 그곳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14.다정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다정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그분께 저항하거나, 그분을 의심하거나, 그분께 죄를 짓거나, 그분께 불순종하거나, 그분께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그분을 못 본 체하거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분께 등을 돌리면 그분은 슬퍼하십니다. 그분은 다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5.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목소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양심, 사랑, 이성, 죽음,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온갖 크고 분명하고 특징적인 음성들 중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가장 크고 분명합니다. 온 세상 신학자들이 다 달려들어도 설득할 수 없는 자도 성령님은 간단하게 설득하여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16. 거룩한 증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학적 지식에 의해 입증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권능을 주는 것은 우리의 속까지 꿰뚫고 들어오는 성령님의 놀라운 말씀과 임재입니다. 이 거룩한 증언자 보혜사 성령님은 임재하셔서 모든 경우에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상대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상대하는 것이 됩니다.

17. 속지 않으시는 성령님

누구도 성령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설교자도 속을 수 있지만, 성령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며, 눈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방 안에 퍼진 강한 향기 같으십니다. 마치 엑스선처럼 막힘없이 어디든지 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성령님 앞에서는 숨을 수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18. 죄의 문제

구원과 계열의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며, 죄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 누구든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19.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불가능한 이유는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든 이유는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찢어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20. 굳은 마음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그분의 음성에 굴복하여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든지 아니면 귀를 막다가 결국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굳은 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화인(火印) 맞은’ 마음이 되고 맙니다.

*독서일기 -최용우

길

길 위에서
어디로 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망설이다가

아무데나
가는 거지 뭐
가다 보면
뭘든 만나겠지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



[덧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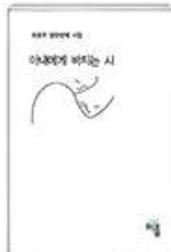
unim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것보다는
어느 쪽으로든 움직이다 보면 뭐라도 나오겠죠 뭐.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기쁨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기쁨

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러) 13400원



꽃같은 그대 있어
이 세상이 꽃 같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시

최용우 지음
216쪽(올컬러) 15000원

그리스도교와 플라톤주의 비교



281. 포르피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에 맹목적이었다

포르피리우스 당신은 지혜와 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들을 사랑한다면,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고전1:24)인 그리스도를 인정했을 것이고, 헛된 지식을 자랑하며 그분의 겸손한 구원에 맞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282.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는 플라톤 학파가 경건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있는 분, 성령님을 세 신 즉, '삼위일체'라 부른다.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283. 포르피리우스는 플라톤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고쳤다

플라톤의 후계자 포르피리우스는 신이 혼을 이 세상 속에 준 것은 혼이 물질계의 악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아가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혼이 신체에 주어진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함이며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면 악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84. 인간의 혼은 신처럼 영원하다는 플라톤 학파의 논의

인간의 힘만으론 밝혀낼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왜 오히려 신의 힘을 믿지 않는가? 혼 자체도 다른 피조물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지 않고, 한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창조되었다.

285. 포르피리우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찾아내지 못했다

기독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보편적인 길을 가졌다. 이 길 말고는 어떠한 영혼도 구원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길을 왕의 길이라 불려도 좋으리라. 영혼 구원의 보편적인 길, 곧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육신을 받으셨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라고 하셨다. (계속)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2



11.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헛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들이 드린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못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제의형식에 맞추어 드린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화려하고 경건(?)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예배'는 멀리 유대인들의 제사와 비교할 것도 없이 그 순서가 어느 때는 50가지도 넘는 가톨릭의 '미사'와 비교해도 얼마나 간단하고 초라하고 시시한지 모릅니다.

왜 교회의 예배 순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단해졌는가 하면 사람들이 길고 지루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때만 해도 예배를 1시간 30분 정도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시간만 넘어가도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다 보니 예배가 찬송과 설교와 헌금 시간만 남았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화려한 동영상과 퍼포먼스가 펼치는 쇼가 되어 버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흥분시키는 쪽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경우를 보기 힘들어졌습

니다. 모든 신앙적 열정과 에너지를 오직 종교적 욕망을 분출하는데 소진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도 못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만 헛된 예배자들인 것이 아닙니다. (7711)

12.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헛된 기도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언제나 대화가 가능한 신입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주문이나 예불이나 예식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숨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헛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헛된 기도입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마6:5)

'특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줄여서 특새라고 합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특새로 이름을 날린 이후 많은 교회들이 봄이나 가을에 '특새'를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 이벤트가 아니라 말 그대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가장 내밀하고 심층적인 영적 소통의 도구인 기도가 사람들의 종교적 욕망을 채우는 '특새'가 되어 버린 현상이 바로 '헛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만 헛된 기도자들인 것이 아닙니다. (7712)

13.누구를 위한 찬양인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헛된 찬양자들이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찬양에 빠져서 희열이나 황홀감을 경험하는 것은 찬양의 참된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CCM이라고 하는 '현대 크리스찬 음악'이 대 유행입니다. 그런데 CCM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아닙니다. CCM은 대부분 '락'이며 락은 인간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마약 같은 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에 심각한 변형을 일으킵니다. '락'의 비트에는 '음란'을 일으키는 코드가 들어있습

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찬양을 '음란'하게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찬양집회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방 뛰며 인간들끼리 재미나게 노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영혼을 찢어 상처를 내는 날카로운 전자음악과 돌아가는 조명에 흥분되어 황홀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흡사 나이트클럽의 모습과 같습니다.

찬양의 목적이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계명'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을 질질 흘리지만 그것은 감정적 몰입이며 종교적 만족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만 헛된 찬양자들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7713)

14. 어저전지 익숙한 모습?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헛된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의 예배일까요? 구약성경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기도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왕상18:22)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사(예배)를 드렸고, 바알의 선지자들도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야의 모습과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묘사해 보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한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기도를 했지만 아무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두 일어서서 제단을 돌며 춤을 추거나 광적이고 반복적인 악기 소리에 맞추어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날뛰었습니다. 옆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소리를 지르면서 열광적으로 몰입하면 엑스타시를 느끼게 되고 무엇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것이 종교 집회라면 심리적이고 정서적이며 신앙적인 어떤 확신이 들게 합니다.

엘리야의 제사 모습은 단정했고 간절했으며 단출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 달라고 큰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때, 불이 내려와 제물과 나무, 돌, 물을 삼켜버립니다. 엘리야는 주님께 기쁨을 끝내주시길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헛된 예배는 신과의 영적인 소통을 하려고 도구를 이용하거나 심리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끌어냅니다. 음, 그런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광적인 모습이 어디선가 많이 본 것처럼 낯설지가 않은 이 기분은 뭘까요? (7714)

15. 영의 예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헛된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 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3-24)고 했습니다.(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영(신령)이란 ‘프뉴 마’로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돕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리니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만 보실 뿐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결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성결성과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연약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간으로 인해 쉽게 근심하거나, 쉽게 상처 입고, 소멸합니다.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에는 그 어디에도 ‘성령님’이 개입할 틈은 없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큐시트(Q Sheet)대로 진행됩니다.

대교회에는 예배를 연출하는 PD(피디)까지 있습니다. (7715)

16. 진리의 예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헛된 예배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진리(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요4:23)에서 ‘영(靈)’은 ‘생명(생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 자체와 생명력의 원천이시요 생기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창2:7)는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한 성품과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에텐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력이 죽어버린 ‘좀비’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죽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하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진리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고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통계자료를 보니 50% 이상 교인들이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순서와 규칙을 따라 마치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자유로움과 풍성함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죠. (7716)

17. 주일 아침 풍경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은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헛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에 집중하느라 예배의 근본정신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일 아침에 좀 더 감동적이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고가의 음향기와 장비와 악기를 설치하고, 최신 영상기기들을 동원하고,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성가대, 예배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스크린에 수십억을 쓰고, 경배와 찬양팀을 앞세워서 예배의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성(城)같은 성전을 짓는 것으로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감정피우기 방식의 분위기나 감정에 사로잡혀 몰아적 태도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리스 십자가든 이제는 그런 건물 안에서 드리는 ‘구약 제사가 끝났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일상의 삶 속에서 바른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오전 성전 안의 의식예배를 드린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성전 밖 삶의 예배는 아예 예배라는 인식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더럽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온갖 범죄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7717)

18. 두 가지 예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 일정한 형식을 따라 드리는 ‘협회의 예배’가 있고, 우리의 존재 자체와 삶으로 드리는 ‘광의의 예배’가 있습니다.

광의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몸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몸 성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성령님이 내 몸에서 소멸 되는 순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영(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영(신령)이란 ‘프뉴마’로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은 온 우주에 충만한 영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씨이 나는 것도 생명력이고, 여름이면 온갖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생명력이고, 가을이면 온갖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도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성령 이해’는 너무나 단편적이어서 ‘인간 개인’에게 치중되어 있다보니 지구 전체의 생명력, 우주 전체의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가톨릭이 훨씬 성령 이해가 풍성합니다.

창조와 종말과 역사의 흐름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데, 오직 인간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니 ‘영(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도 ‘개인주의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예배(시 148:1-14)한다고 합니다. 영(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지구 전체와 온 우주 만물이 예배하는 그 생명력 안으로 인간들도 함께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7718)

19. 하나님 공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처럼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예배가 ‘사람의 계명’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우리의 예배가 열정적이거나 은혜(?)롭거나 뜨겁거나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들끼리 자기만족 자아도취 같은 행사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시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물어보는 방법은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공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험’으로 아는 것이지 ‘공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어드리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일치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어드리는 것 정도는 ‘공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공부’라고 합니다.

하나님 경험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굳어진 나의 선입관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들이면 되는데 기존에 배웠던 ‘사람의 계명’이 마음 문을 열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체가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7719)

20. 달콤한 사람의 전통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막7:8) 하시는데 말씀 듣는 순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정통’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판단의 잣대가 자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과 다르면 ‘이단’ ‘사이비’ ‘주의’ ‘교류금지’ 딱지를 붙여 퇴출을 시킵니다. 지금 ‘예수’라는 사람도 조금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는 것 같아서 먼 예루살렘에서부터 조사를 하러 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당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전통(교리)만 지킨다”고 하니 충격을 받은 것이죠.

자신이 옳다는 신념으로 가장 열정적이고 강력하게 추구하는 그 행동이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면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 같은 일입니다. 자기 자식에게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결과적으로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든다거나, 자기 차가 비싼 외제차라며 주차장 두 칸을 사용한다거나, 자기 교회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다른 교단, 다른 교회를 깎아내린다거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이나 장로의 유전을 더 지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각 교단에서 만든 ‘교단 헌법’을 따라 교회를 운영합니다.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할 때 목사님 손에 들려있는 까만 책이 바로 ‘교단 헌법’입니다. (7720) ©최용우



코스트코 디너롤 (사진:최용우)

오병이어

장모님이 보름 전에 사주신 디너롤 한 봉지(36개) 열심히 먹었는데도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다. '디너롤'은 '모닝빵'보다 크기가 커서 두 개 이상 먹을 수가 없다. 아내와 내가 하루에 두 개씩 꼬박꼬박 먹어도 열흘은 먹어야 하는데 아내는 한번에 반조각도 못 먹는다.

갑자기 성경에 '오병이어' 사건이 생각난다. 빵 다섯 개로 5천명이 먹었다는 이야기... '진보적인' 성경해석은 아이가 빵 다섯 개를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것을 다 내놓아서 나누어 먹었다고 해석한다.

'보수적인' 성경해석은 그냥 어디서 갑자기 뽕~(?)하고 생겼다고 한다.

5천명이 먹으려면 한사람이 2개는 먹어야 하니 '디너롤' 1만개는 있어야 하는데... 과거 내가 빵공장에서 일했을 때 그만큼이면 몇 사람이 며칠은 야근에 특근을 해야 가능한 양이다. 빵 1만개 만드는 일 장난 아님. 과연 진실은?

십자가와 노을

느지막하게 집을 나서 운동산책을 하는데 남세종교회 십자가탑과 서산으로 넘어가는 저녁노을이 멋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약간 위로 올라간 언덕에 서서 기적 같은 장면을 한참이나 냇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열린 사진을 찍었다. 해는 금새 넘어갔다. 조금만 늦었어도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기적이란 물 위를 걷는 것만이 아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기적이다.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이며 넘어가는 해와 우뚝 서 있는 십자가가 말없이 교감을 하는 그 찰라의 순간을 지금 내가 보고 느끼고 평화로움을 누리는 이 순간이 바로 기적이다.

저 십자가탑에 종이 있어서 종소리라도 나지막하게 울렀다면 '풍경(그림)과 소리'가 어울려 더 기가막힌 순간이 되었겠지만, 세상은 내면을 건드리는 '종소리'를 싫어하니 그냥 풍경으로 만족.



집짓기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맞은편 집 공사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 나도 내가 원하는 집을 하나 '조용히' 지어볼 생각이 있었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집 짓는 일이 정말 너무 시끄럽다.

집주인이야 새집이 생겨서 좋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거의 반년을 시도 때도 없는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소음에 대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전혀 없어 보였다. 원래 그런 것인지 앞집을 짓는 회사만 그런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

집짓기동호회 카페에 가입해서 살펴보니 집 짓는데 대략 2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나온다. 세상에... 그렇게 복잡한 거였어? 그럼 나는 그냥 누가 잘 지어놓은 집을 사서 들어가 살아야겠다.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아프다

차가에서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병원에 간 이야기가 나왔다.

인숙: “골반이 너무 아퍼서 병원에 갔는데 골반이 아니라 디스크라. 디스크 때문에 신경에 연결된 골반이 아픈 것이라.”

다들 자기의 아픈 부위를 한 마디씩 말

한다. 안 아픈 사람들이 없다. 그중에 제일은 나이순으로 연세가 가장 많으신 장모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80년을 사용한 몸이니 안 아픈 것이 비정상이지.

사실 나도 아픈 곳이 있다. 다들 아프다는데 나까지 아프다고 길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나는 오른쪽 팔이 너무 아프다. 잠자려고 누워 가만히 있으면 팔목이 육신육신 쑤신다. 그래도 말은 안 한다.

남들 두 손으로 하는 일을 평생 한 손으로 하신 어머님은 평소에 “폴뚝이 징~~그럽게 쑤신당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나도 이렇게 아프는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남이섬

작딸이 직장에서 ‘남이섬’ 관광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이용권에 당첨이 되었다며 가족여행을 가자고 해서 얼떨결에 남이섬 여행을 다녀왔다.

하루 전에 서울에 올라가 딸들 집에서 자고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하여 1시간 30분 만에 남이섬 선착장에 도착했다. 배를 타고 남이섬으로 들어갔다.

큰딸은 직장 때문에 못 가고 이번 여행은 작딸과 셋이서 다녀왔다. 평소에 남이섬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여행을 하기는 처음이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하도 남이섬을 많이 봐서 그런지 자주 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거의 50년 넘게 꼼꼼하게 잘 가꾼 티가 나는 공원이었고,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었다. 겨울이라서 꽃을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워 꽃 피면 다시 오자고 약속하고 섬에서 나왔다.



튀어나간 껌

아내와 어디를 가는데 무슨 말을 하려다가 내 입에서 씹던 껌이 튀어나가 버렸다. 마치 길에다가 껌을 뺀 것처럼 길바닥에 딱 떨어졌다. “자기도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애. 담배꽂초를 버리고 가래침을 뺀 사람들 욕할 게 아니야.”

나는 찝소리도 못하고 “그려~ 맞어~”

어느 날 흔들리던 2층 왼쪽 송곳니가 쏙 빠졌다. 깨진 창문처럼 2층에 구멍이 뚫렸다. 영구는 앞 창문이 깨졌는데 나는 옆 창문이 깨진 것이다.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하라고 한다. “임플란트 말고 뭐 하는 땀뺀하는 게 있 다던데요...” 그래도 임플란트만 하라고 자꾸 권해서 그냥 치과를 나온 이후로 그냥 그냥 깨진 창문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자꾸 말을 할 때 바람도 새고, 침도 더 많이 튀고, 가끔 입 안에 있는 것들이 맘대로 훅! 튀어 나간다.



아저씨 책상속

아저씨 서랍의 특징은 쓰지 않는 온갖 충전기가 가득하다는 것이다. 아내가 보더니 죄다 내버리라고 한다. “그려, 쓰지도 않는 것, 버려버려버려버려 버려...”

핸드폰, 프린터기, 카메라, 면도기, 드릴, 믹서기, 공유기, 노트북, 가슴기, 보조배터리, 커피그라인더, 패드, 전자기장판...

전부 충전기가 달려 있는데 그 크기가 전부 다 달라서 자기 짝이 아니면 암수 구멍이 안 맞는다. 전자제품을 살 때마다 하나씩 따라온 각종 충전기가 너무 많은데, 신기하게도 남자들은 그걸 전부 다 모아둔다.

이 모든 충전기가 ‘충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기들이니 통합 규격을 만들어서 모든 가전제품을 하나로 호환이 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행이 유럽에선 모든 가전제품은 앞으로 USB.3 충전잭만 사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641회 식장산(598m대전) 2024.2.9

작년 2월 9일에 아내와 함께 임도를 타고 올랐었는데, 딱 1년 만에 혼자 해돋이 전망대 방향으로 올랐다. 세천쪽에서 오르면 '식장산 정상석' 까지 한참 돌아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대성동 고산사 마당에 차를 대고 올랐더니 정상석 까지 한 번에 바로 올라갈 수 있었다.



시간 여유가 많아 절을 꼼꼼히 돌아보았다. 고산사(高山寺)는 886년 신라 정강왕

1년에 도선(道詵)이 창건하였으니 1천1백30년 된 절이다. 절집 기둥을 보면 한문이 세로로 새겨진 '주련'이 걸려 있는데, 고산사 주련에는 아랫부분에 조그맣게 한글로 해석을 붙여 놓아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식장산 정상 부근에는 눈이 쌓여 있어서 매우 미끄러웠다. 한번 미끄러~ 넘어져서 엉덩이 깨질뻔했다.

▲제642회 향적산(575m계룡)2024.2.12

블랙야크에서 올해 새롭게 100대명산에 8산을 추가했는데, 가까운 계룡시에 있는 '향적산'이 포함되어 다녀왔다.



향적산은 국사봉으로 더 알려진 산이다. 산에 오르는 곳곳에 있는 이정표는 '향적산'보다는 '국사봉 가는 길'로 더 많이 표시가 되어 있다. '국사봉'은 무당들이 좋아하는 산이다. 향적산(국사봉) 아래에도 곳곳에 굿당이 있었다. 인터넷으로 검색

을 해보니 계룡산 주변에 10개의 국사봉이 있고 그 주변에 64개의 굿당이 있다고 나온다. 정도전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는 신도안은 좌청룡 선인봉, 우백호 국사봉(國師峰)으로 둘러 쌓인 명당자리라고 한다. 그래서인가 향적산 국사봉 정상에는 알 수 없는 표시가 새겨진 여러 가지 오래된 비석들이 서 있었다.

▲제643회 비학산295(일출봉252m) 2024.2.24

비학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며 항상 '내 자리'에 앉아 멀리 계룡산 능선을 한참씩 바라보다가 온다. (중광사 뒤편 언덕에 세 종사에서 나를 위해 만들어준 정자와 의자가 있다. 앉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냥 내 맘대로 '내 전용 의자'다.)



계룡산 능선에 하얗게 눈이 내렸다. 이렇게 보면 저 까마득한 곳에 어떻게 올라가나... 엄두가 안 나지만, 만약 저쪽 산 꼭대기에 올라야겠다고 맘 먹으면... 지금부터 여기에서 산을 내려가는데 30분, 집에서 동학시주차장까지 차로 가는데 30분, 능선까지 오르는데 2시간... 약 3-4시간 정도면 저 맞은편 꼭대기에서 여기를 바라보고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일이 엄청 대단해 보여도 가만히 계산해 보면 별것 아닌 경우가 많다. 미리 쫄 것 없다. 까짓것! 그냥 하면 된다.

▲제644회 모악산(793m전북 완주) 2024.2.26

모악산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대원사 방향으로 올라가 수왕사-방송탑-천일암-계곡-주차장까지 천천히 걸었다.



어떤 분의 산행기를 보니 수왕사에서 정상 구간이 급경사구간이라 오르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음? 나는 왜 급경사를 올라갔다는 기억이 없지?

모악산 정상 바로 아래, 바위틈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수왕사'를 꼼꼼히 돌아보았다. '전국에서 가장 물이 맛있는 곳 - 그래서 물(水)의 왕(王)이라 하여 수왕사'라고 한다. 오흥~ 그래? 그렇다면 한 바가지 먹고 가야지. 전국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러 온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뿐이다. 그렇다면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대표해서 한 바가지 더 마시자!

모악산은 어머니 가슴의 풍선처럼 물이 정말 풍부한 산이었다. ©최용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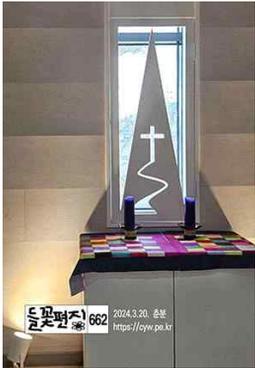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씨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춘분 -제비가 돌아오는 날

춘분은 1년에 2번 밤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입니다. 춘분 즈음에 남쪽에서 제비가 돌아오고, 만물이 소생해 여기저기 새싹이 돌아납니다. 거리에 삼삼오오 봄나들이를 나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꽃샘추위로 장롱에 넣어둔 겨울옷을 다시 꺼내기도 합니다. 시골에서는 농사 준비를 하느라 농부들이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파종한 씨앗을 돌보고, 다년생 싹들이 움트는 밭을 돌아보며 올해 농사를 꼼꼼히 계획하는 절기입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필요 없어진 것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과학이 극도로 발달하여 앞으로 인간이 하는 일을 AI가 다 해 줄 것이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신이 필요한 것인데, 인간이 다 해버리면 신의 역할은 축소되어 결국 신도 소멸할 것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소멸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안으로 고립된 구조가 소멸을 더욱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악산 자락에 예쁘게 새로 지어진 '들꽃교회' 들렸습니다. 강대상 십자가를 밖으로 뚫어 자연빛이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세상으로 뚫린 교회'를 본 것 같아 신선한 감동이었습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마태-예수어록> 692쪽 28000원 -2024.3.19. 출간!
2024년 첫 책이 나왔습니다. 두꺼운 책이라 편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80.아내에게 바치는 시(시집11) 컬러216쪽 15000원 -2023.12.26. 출간!
79.들꽃편지20권-호박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12.20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75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매월 1권꼴로 신간을 낼 계획입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4.2월 재정결산

2024년 2월(1-29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기순 박승현 박승현 박신혜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정효숙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새벽기도
장사교회 함안중앙교회

총 23분이 1,50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4.3.20.일까지 7763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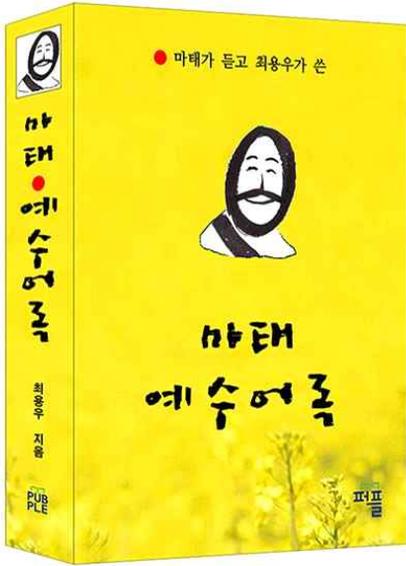
③도서출판 -그동안 81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숨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해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새로 나온 책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서 빨간색으로 인쇄된 예수님의 말씀 구절만 모두 뽑아 아침마다 한 절씩 묵상하고 주신 은혜와 감동과 능력을 받아 적어 모았습니다.

최용우 692쪽 28000원
교보문고 퍼플

저는 어느 날 4복음서를 읽다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어록집'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4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마가가 그 어록집을 기초로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어록집과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씁니다. 신약학자들은 어록집이 복음서의 원천이라고 해서 Q문서(Quelle) 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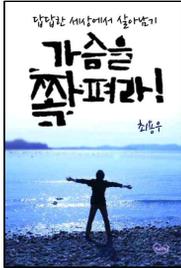
저는 현실적으로 방대한 양의 성경을 모두 묵상할 수는 없으니 그중에 '예수님의 말씀'만이라도 모두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빨간색으로 인쇄가 된 '예수님의 말씀' 구절을 모두 뽑아놓고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텍스트(문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4:12)라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가슴을 짝 펴라!

답답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남자든 여자든 풍성한 가슴은
자부심이죠. ^^ 가슴을
짝 펴면 폐기능이 풍성하게
활성화 되어 자신감과 의욕
이 부풀어 오릅니다.
279편의 자신감 회복 글
11,600원 308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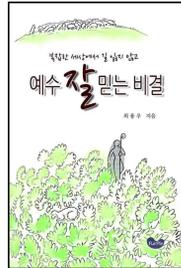
다시 벌떡 일어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드러
누워서 세상 밀바닥만 쳐다
보면 온통 똥물은 구두판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
도 당장 벌떡 일어나 뛰면
역전할 수 있어요. 안 늦었
습니다. 286편의 도전 글
12,400원 336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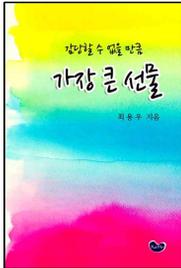
정정당당 잘 살자

힘없고 뺨 없고 돈 없어서
억울한 '을'인 사람들이 유
난히 많은 이 세상에서 그
리스도인들은 공의를 행하며
쪽팔리지 않게 정정당당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286편의 정정당당 글 모음
12,400원 336쪽 펴플



예수 잘 믿는 비결

복잡한 세상에서 길 잃지
않고-온갖 가짜들이 미혹하
고,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
가 가짜 같은 세상에서 진
짜를 분별하고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비결입니다.
288편의 순수복음 글 모음
12,100원 326쪽 펴플



가장 큰 선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받지 못하
는 분들을 위하여 그분 안
에서 행통하는 법을 알려드
립니다. 288편의 행통 글
12,100원 326쪽 펴플



인생 최대의 행복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 최대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을 누리며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참된
신앙생활 비법 전수.
280편의 신앙생활 글 모음
11,800원 316쪽 펴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62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